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6호 2004년 7월 9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중기, 기술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



유창무 중기청장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 주재

중소기업청은 9일 은행회관에서 기업은행장 등 6개 은행장, 신·기보 이사장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방안',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지원기간 연장',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방안' 및 '특별재해지역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

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대하여도 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를 결합한 '기술·기업등급평가 모형'을 신규 개발하고, 업종 및 기술분야 등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차별화 및 경제여건·시간 변화 등을 반영한 동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평가기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고,

기술평가등급의 정의를 기준서 형태로 공표하는 등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기술평가인증이 국내 기술·창업금융의 Hub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인증기업에 대한 별도의 신용조

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에 대해 기술력·사업성에 근거한 보증액 산정 등 보증심사체계를 기술력 위주로 개편키로 했으며,

미래성장산업(6T), 지식 기반서비스업 등 고위험-고수익 기업인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협약기간이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예정보증공급액(1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장하여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실정에 맞는 보증확대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하고, 프랜차이즈협회와의 협약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개발, 지역향토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전자보증 활성화 및 재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보완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특별재해지역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중기청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저리(3%)로 지원하는 재해 복구 지원시스템이 세부 집행체계 미비로 재해발생 40일후에 실제대출이 신청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유보금액 고갈 등으로 인한 자원 부족시 민간금융기관의

자체재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민간금융기관별로 조달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에게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재해 발생시 복구자금이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82)

하도급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 납품 중소기업의 하도급애로 발굴 및 해결 -

중소기업청은 대·중소 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청(기업환경개선과) 및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하도급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중소기업하도급애로신고센터”는 최근 대기업이 임금, 원자재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 인가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

이 센터는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신고하면 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e-Manufacturing 163개사 지원

중소기업청은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중소제조생산공장을 디지털화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e-Manufacturing)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67억원 보다 18억원(26.9%)이 늘어난 85억원이며, (주)한창 등 163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생산정보화에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지원과제를 우선 선정한 후, 선정된 중소기

업과 공동으로 생산정보화를 지원할 적격 IT업체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지원기업 중 시스템 활용 실적이 우수한 5개사를 업그레이드 시범기업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시범기업은 제품설계분야부터 사후단계인 PL대응분야까지 일련의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123억원을 투입하여 256개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8년까지 총 1,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2)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

- 429개 과제, R&D자금 360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전략과제로 429개 과제를 선정하여 3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략과제는 중기청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수출유망품목 등 정부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사전 조사·분석한 946개 과제를 공고하여 1,158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최종 429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원대상별 선정현황을 보면 수요조사과제에 229업체 196억원, 우수특허과제에 83업체 60억원, 신기술아이디어 우수과제에 55업체 49억원, 수출유망과제에 46업체 41억원, 지역특화과제에 16업체 14억원 등이다.

기술분야별로는 기계소재 109업체, 섬유화학 123업체, 전기전자 101업체, 정보통신 96업체 순이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51.7%,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8.3%로 집계됐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6)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 건립

중소기업청은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장애인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강원도 원주시 소재)를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고 건립비 5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는 잠재력이 풍부한 장애인들이 경쟁시장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재활학과 등 장애인 관련 학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연세대가 운영을 맡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는 120평 규모의 창업보육실, 10명 내외의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특수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며, 컴퓨터 관련업, 문화·예술·디자인 관련업, 장애인 의료기구 제조업 등의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다

중기청은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 및 장애인들의 호응도 등이 높을 경우에는 내년도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지원과
(042-481-4410)

벤처기업 수 3개월 연속 증가

지난 2001년말 이후 매달 감소했던 벤처기업 수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확인업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3월 7,464개사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4월 154개사, 5월 280개사, 6월 304개사가 각각 늘어나 6월말 현재 8,202개사로 나타났다.

최근 벤처기업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신규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신규 벤처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중 567개사 보다 328개사가 증가한 895개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은 지난 1월 1,477개사에서 6월 1,553개사로 늘어난 반면 벤처투자기업은 지난 1월 646개사에서 6월 560개사로 감소하고 있어 최근 벤처기업 유형이 '기술혁신형벤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지난 3월말에 비해 제조업이 497개사, 정보처리 170개사, 연구개발서비스업 39개사 순으로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74개사, 경기 237개사, 대구·경북 52개사, 인천 32개사 순으로 증가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벤처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지난 2002년 혁신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혁신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